

# 추석맞이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풍성'

### 전주역사박물관 14~18일 전통놀이 체험·가족 기념촬영·특선영화 상영 등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뜨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러움을  
우리의 사랑이  
욕심의 아픔을 견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고운 달이 먼저 옵니다  
당신도 내내 행복 하세요  
등글개

-이해인 수녀의 <달빛기도>-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추석맞이 세시 풍속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번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은 14일~18일 전주역사박물관 하늘마당, 로비, 녹두관 등에서 진행되며 '전통놀이

체험, 우리가족 기념촬영, 만들기 체험, 특선영화 상영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통놀이체험에서는 아프리카의 '만칼라'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는 두 개의 큰 홈과 12개의 작은 홈을 가진 나무판을 가지고 두 명이 하는 놀이로, 나무 홈에 구슬을 하나씩 나누어 담으면서 구슬을 자기 쪽의 큰 홈에 옮겨 구슬의 수를 비교해 많이 가져온 사람이 승리하는 한다.

이와 함께 역사박물관의 대표 프로그램인 우리가족 기념촬영도 진행된다. 추석 연휴동안 한복을 입고 방문한 50가족에게 추석사진을 찍어준다. 이밖에 매일 오후 2시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추석특선영화로 '베딩턴', '비츠와이프', '문:달의 요정'이 상영된다.  
문의 228-6485.

####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필로미나의 기적 상영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구 완산보건소, 4층)은 '명절특집 무료 상영'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영화는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이 연출을 맡은 유쾌한 감동 실화 <필로미나의 기적>으로 14일과 16일 오후 1시30분 상영된다.

영국 아카데미 각색상, 베니스영화제 각본상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 <필로미나의 기적>은 50년 만에 아들을 찾아 나선 할머니와 특종을 쫓는 기자의 웃음과 감동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 '미틴 식스미스'의 저서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얼어버린 아이'를 원작으로 하며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

작품이다. 또한 명배우 주디 덴치와 스티브 쿠건이 열연으로도 기대를 모았다.  
각 회차 1시간 전부터 티켓박스에서 선착순(1인 1매)으로 좌석 지정을 받은 후 입장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 홈페이지 <http://theque.jif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231-3377.

#### ▲전주전통문화관, 한가위 민속명절잔치 열어



전주전통문화관은 가족대항놀이, 신행길놀이, 공연 등 프로그램으로 15~17일 <한가위 민속명절잔치> 행사를 연다. 가족대항놀이를 대회는 명절 당일 15일 오후 2시부터 혼례마당에서 펼쳐진다. 대회는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하며 사전 접수한 16개 팀이 웃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어 16일에는 '한마루' 팀의 풍물 공연과 '지무단' 팀의 검무공연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신부가 친정에서 초례를 치룬 후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의식을 재

현하는 '신행길놀이'가 진행된다. 놀이는 한옥마을 일대에서 흥겨운 한마당으로 연출되며, 코스는 전주전통문화관에서 출발하여 공예품전시관, 경기전으로 이어진다. 시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 하는 포토타임도 갖는다.

이와 함께 전주전통문화관 놀이마당에서는 굴렁쇠 굴리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의 민속놀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로비에서는 전래동화책칠하기 등의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문의 280-7042.

또 전주문화재단의 마당창극 '아나넷 다 배갈라'는 16일과 17일 양일간 혼례마당에서 진행된다. 마당창극 문이는 전주문화재단 283-0223으로 하면 된다.

전주문화재단 전주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할인 이벤트  
전주문화재단은 전주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의 추석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6일과 17일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모든 관객에게는 50% 할인을, 전주마당창극 온라인 예매처 중 인터파크 티켓에서 3인 이상이 예매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또 공연 당일 한복을 입고 공연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객에게는 '동남물국밥 식사권'을, 3대가 함께 관람하는 관객에게는 전라북도 선자장의 손길에 담긴 '전통 부채'를 증정한다.

이외에도 공연을 여는 마당에는 단판 율놀이와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283-0223.

/정해은 기자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 수상 장면

## 고미희 의원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수상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비례대표)이 월간문학 동시 부문 신인작품상을 수상했다.

12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사)한국문인협회(이사장 문효치)가 주관하는 '2016 문학상 시상식'에서 제137회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동시부문 수상작에 고 의원의 '숲속유치원'이 당선됐다.

고 의원은 20여 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제10대 전주시의원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숲 유치원 확대 조성 등 어린이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오순택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당선자는 오랫동안 깊이 있게 동시 창작에 전념했다는 것을 '숲속유치원'이 잘 보여주고 있다"며 "동시가 갖추어야 할 재미와 문학성을 잘 갈무리하고 있어 앞으로 동시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고 의원은 "보잘 것 없고 부족하기만한 시를 당선작으로 뽑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아직은 뒤떨어지는 글을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재 기자



## 혼불학술상에 '혼불, 언어·문화·공간을 읽다' 선정

### '혼불'에 대한 신진 연구자들의 학문적 열정과 다양한 시각 담겨

제11회 혼불학술상에 <혼불, 언어·문화·공간을 읽다> 전남대학교출판부(2015)가 선정됐다.

이 책에는 '혼불'에 대한 신진 연구자들의 학문적 열정 및 다양한 시각, 진지하고 신선한 사유가 담겨 있다.

문학박사 엄숙희(전북대 강사)를 비롯해 김수호·김연화·김은정·정도미·정미선·조아름·진주·최유정 씨 등 전남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의 신예 연구자들이 혼불을 중심점으로 소설·시·국어학 등 각기 다른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개별적이고 독특한 접근을 시도해 그 성과를 책으로 엮었다.

이번 연구를 주도했던 엄숙희 박사는 "혼불은 그 자체의 언어들이 만들어낸 의미의 공간이며, 그 언어들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의미 지워지며 끊임없이 의미를 발생하며 재생산되는 텍스트로, 늘 새로운 해석의 욕구를 자극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소설뿐 아니라 시와 여학 전공자들이 자신의 전공 영역을 넘어 통섭과 융합적인 연구의 시각을 교류하는 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심사는 전북대 장성수 명예교수와 우석대 송준호 교수, 전북대 김병용 초빙교수가 맡았다.

송준호 심사위원은 "신진 연구자 특유의 참신한 감각으로 혼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독해 가능성들을 이끌어내어 독서 지평을 한층 넓히고 있다"면서 "이 연구 성과는 앞으로도 지속될 혼불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소개했

다.  
또 김병용 심사위원은 "이 책에서 보여 주는 다양성은 인문학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주요 키워드들의 교합과 새로운 관점의 접근으로 시작된 이번 수상작은 백화제방의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혼불학술상은 혼불기념사업회가 소설가 최명희(1947-1998)의 삶과 소설 '혼불'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과 평론을 심사해 상금·상급 3백만 원을 시상한다.

시상식은 10월 22일 오후 3시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린다. 문의 284-0670.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이달 우수게임 '로한 오리진·스톤에이지·이야기톡'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년 3차 이달의 우수게임으로 일반게임 부문 플레이워드의 '로한 오리진' 등 4편을 선정했다.

오픈마켓 게임 부문에 넷마블엔투의 '스톤에이지', 착한게임 부문에 와이스트리의 '이야기톡', 인디게임 부문에 키워웍스의 '미어의 샘 2'가 뽑혔다.

선정 업체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함께 '2016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후보 자격을 준다.

문체부가 주최하는 게임 전시회와 투자유치 설명회(IR) 참가 등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달의 우수게임'은 게임 창작을 활성화하고 제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근 기자

## '정읍, 대륙을 품다' 개막

### 정읍시립미술관 - 중국 서주시와의 미술교류전

정읍시립미술관이 마련한 중국 서주시와의 국제미술교류전 '정읍, 대륙을 품다' 개막식이 12일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시립미술관 교육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생기 시장, 유진섭 시의회의장, 전라북도·정읍시의회 시의원 등 각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주시에서 평생회화의 미술작가 6명도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평생회화 66명 작가의 64점과 정읍지역 작가 25명의 40점 등 총 104점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회에서는 중국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이가열(1907~1989) 작품의 '해우서주'와 '이강산수천하주', '목우도'를 만날 수 있다. 또 섬세한 동방예술과 서방회화의 강렬함의 융합으로 서정이 넘치고 있는 추상적이면서 중국 서예, 시와 음악, 춤을 표현하고 있는 주덕근(1920~2014)의 작품인 '동경소화상', '시원한 세계', '신비의 심경' 등이 있다.  
/정읍=립대학 기자

##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9월 13일>



### ▷쥐띠

46년생: 금전적으로 지출이 심해지는 운.  
60년생: 괜한 일에 휘말려 구슬이 팔상하니 나쁘지 마라.  
72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  
84년생: 걸으려는 그럴듯해 보이나 내면은 부실.



### ▷소띠

49년생: 금전운, 건강운이 좋지 못하니 지중하라.  
61년생: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7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하는 운



### ▷호랑이띠

50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  
62년생: 처음에는 원망하나 나중에도 고마워할 일이 생긴다  
7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8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일.



### ▷토끼띠

51년생: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운.  
6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순댓사람의 도움을 받라.  
75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좋은 운.  
87년생: 좋은 결실을 맺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 ▷용띠

52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6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시비가 발생.  
76년생: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주시.  
88년생: 자신보다 어렵다고 무시하는 언행은 삼가라.



### ▷뱀띠

53년생: 변동이나 변화를 가지면 흥한일이 생기는 운.  
65년생: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77년생: 생각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보아라.  
89년생: 무실코 했던 행동으로 구설수가 발생하고 원망.



### ▷말띠

54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트러블을 피해야 한다.  
6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결과  
78년생: 인덕이 있는 운이다. 귀인을 만난다.  
90년생: 동기에게 화합하면 좋은 일이 있다.



### ▷양띠

55년생: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운.  
67년생: 더 큰 것을 욕심내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기분 상할 일이 발생.  
91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지출이 많아지는 운.



### ▷원숭이띠

56년생: 믿고 있던 것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운.  
68년생: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며 행동하면 최고의 결과.  
80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92년생: 도의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혼자서 해결.



### ▷닭띠

57년생: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생긴다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이 있을 운.  
81년생: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 좋은 운.  
9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라.



### ▷개띠

46년생: 식욕이 따르고 인덕이 있는 운.  
58년생: 하고자 하는 모든일을 약간 모자르게 해라.  
70년생: 뒷사람과의 화합에 신경써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82년생: 건강에 좋지 않은 운이니 섭생에 주의.



### ▷돼지띠

47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다.  
59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이다.  
71년생: 순간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마라. 어려움은 곧 풀려질 것이다.  
83년생: 두 번, 세 번 봐도 놓치는 것이 생기는 운.